

#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

정종현\*\*

## 〈차 례〉

1. 들어가며
2. 나카니시 이노스케 관련 기사와 작품 번역의 현황
3. 나카니시 이노스케 작품에 대한 조선문단(작가)의 반응
4. 미완에 그친 『汝等の背後より』의 되받아쓰기
5. 나가며

## 【국문초록】

한국근대문학사에서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는 카프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는 일본의 작가이다. 그는 일본의 저명한 사회주의 활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붉은 흙에 싹트는 것』, 『너희들의 배후에서』, 『불령선인』 등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다룬 소설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문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조선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을 계기로 염군사와 파스쿨라 동인들이 통합하여 카프를 발족시켰기 때문에 그는 카프의 산파역으로 기억된다. 그렇지만,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식민지 프로문학에 끼친 영향은 환영회의 일회성 장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식민지 관련 문학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으며, 식민지의 신경향파 및 프로문학 작품의 성격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그의 영향은 1930년대 잡지 『삼천리』의 조선문학의 범주를 묻는 설문 문항으로 활용될 정도로 강렬했다. 또한 그가 『붉은 흙에 싹트는 것』에서 소재로 다룬 탄실 김명순의 에피소드는 김기진 등을 매개로 하여 식민지 계급문학의 여성(재현)의 타자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했다. 본 연구에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식민지 문단에 끼친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그러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번역 및 수용의 흔적을 재구성하여 향후의 나카니시 이노스케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KAPF, 프로문학, 신경향파, 『너희들의 등 뒤에서(汝等の背後より)』, 『붉은 흙에 싹트는 것(赭土に芽ぐむもの)』, 『불령선인(不逞鮮人)』

## 1. 들어가며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887-1958)는 장편소설 『붉은 흙에 싹트는 것(赭土に芽ぐむもの)』(改造社, 1922.2)으로 큰 주목을 받고 등장한 후 단편 『불령선인不逞鮮人』(『改造』, 1922.9), 『너희들의 등 뒤에서汝等の背後より』(改造社, 1923.2), 『농부 키헤에의 죽음農夫喜兵衛の死』(改造社, 1923.5)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들 작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 초기에 발행된 잡지 『씨 뿌리는 사람種蒔く人』에 참여했으며, 이 잡지가 간토대지진의 혼란 속에 중단된 후 일본의 프로문예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킨 새로운 잡지 『文藝戰線』의 창간(1924.6)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나카니시는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나라와 인민國と人民』(平凡社, 1926.6), 중국을 배경으로 한 『만주滿洲』(近代書房, 1934.2), 『군벌軍閥』(實踐社, 1935.11)과 인도의 민족운동을 다룬 『열풍熱風』(平凡社, 1928.4) 등 식민지(화)의 과정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제재로 한 장편소설들도 창작했다.

이러한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다. 그는 일본어로 창작했지만 그 소설의 대상은 당시 일본 작가로서는 드물게 조선을 무대로 삼았으며, 등장인물도 조선인이 많았다. 그의 실질적인 데뷔작이자 출세작인 『붉은 흙에 싹트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토지 조사와 농민의 몰락, 일본 광산의 수탈과 학대를 고발하는 작품이었고, 『너희들의 등 뒤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조선의 청년들을 그렸다. 『불령선

인』은 '세계주의자'를 자임하는 일본인 서술자가 반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조선의 북서부 지역을 여행하는 서사로 일본인 서술자의 3·1운동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조선인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심 등이 잘 드러나 있다.<sup>1)</sup>

1910년대의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조선 체험과 그것을 토대로 한 조선 제재의 소설들, 그리고 1920년대의 조선 방문이 식민지의 '프로문단' 형성에 끼친 영향 때문에 그의 삶과 문학은 그 동안 한·일 양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연구를 거칠게 개괄하자면, (1) 그의 전기적 생애와 조선체험 및 행적과 문장 등에 대한 나카니시 이노스케 연구회의 다양한 연구들 (2) 일본 문학의 '타자상'의 한 사례로서의 연구 (3)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 (4) 나카니시 이노스케 작품의 표기 언어 문제에 대한 연구 (5)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조선의 프로문학 형성의 관련성 연구 (6) 『너희들의 등 뒤에서』와 작가 김명순(탄실) 스캔들의 관련성에 대한 젠더적 연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2)</sup>

이들 모두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이지만, 이 글에서는 특히 (5)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조선의 프로문학 형성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느낀 문제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김기진, 박영희, 송영 등은 그 경위가 조금씩 어긋나 있지만, 나카니시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그를 환영하는 모임을 전후하여 KAPF가 결성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1925년 8월에 화요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 북풍회 등 4개 단체가 연합으로 여성 사회운동가인 오쿠 무메오(奥ムメオ)와 나카니시 이노스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그의 경성 방문을 환영하는 문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바로 KAPF가 태동했다. 당시 『시대일보』 기사는 이 순간을 다음처럼 보도하고 있다.

1) 이러한 소설 외에도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일본 사회의 편향된 조선인 표상을 비판한 '조선인을 위하여 논한다(朝鮮人のために弁ず)'(『婦人公論』, 1923. 11-12)를 발표했다.

2) 각각의 범주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며 언급하도록 하겠다.

“십칠일 오후 8시 반경부터 시내 대성식당(大成食堂)에서는 조선의 제3전선(第三戰線)을 형성하고 있는 분자와 금번 강연차로 래경한 일본 프로레타리아 문예연맹 발기인 中西伊之助 氏が 모하여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예연맹 발기에 대한 의론과 및 간담회가 열리었다는 바 당일 출석한 사람들은 단체 ‘파스쿨라’의 동인과 염군사(焰群社)의 동인 십여명이었다는 데 문단적으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연맹이 탄생될 날도 멀지 아니한 장래에 있다 한다.”<sup>3)</sup>

기사에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 환영회를 겸한 프로문예연맹 준비회 소식을 전하며 희식의 사진을 싣고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권영민은 백조파를 해소하며 새로 형성된 김기진, 박영희 주도의 ‘파스쿨라’와 문예가 직접적인 정치 운동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적효, 송영 등이 주도한 ‘염군사’가 여러 교섭과 갈등을 거쳐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환영회를 계기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을 조직하는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sup>4)</sup> 특히, 신문에서는 훼손된 환영회의 사진을 나카니시 이노스케 유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 회합에 ‘파스쿨라’와 ‘염군사’ 동인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sup>5)</sup> KAPF가 조직되는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조선 방문과의 관련성을 확실하게 밝힌 것은 큰 성과이지만, 그것으로 그 관련성이 모두 해명된 것일까?

이원동은 카프 결성 등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과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국제 연대의 한 장면으로만 제한되었던 기존 연구를 넘어 소설 작품에서 이루어진 연대와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너희들의 배후에서』 등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소설은 조선인을 ‘폭도’로 보는 일본의 주류적 이미지를 전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환상이나 욕망을 투사함으로써 조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너희들의 배후에서』를 번역한 이익상 역시 인간 본성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사회주의와 종교 사이의

3) 『조선‘프로’문예연맹준비회』, 『시대일보』 1925.8.19.

4) 권영민,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중에서 ‘카프의 조직과정과 그 배경’을 참조.

5) 권영민,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1920년대의 한국 계급문단』, 『외국문학』 겨울호, 1991.

논쟁 등을 함축한 원작을 대폭 축소시키며, 조선인 전체와 일본인 전체의 선명한 대립구도로 만듦으로써 소설을 통한 국제주의적 연대의 가능성을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sup> 번역과 수용을 통한 문학적 영향관계의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척이지만, 그 논의가 『너희들의 배후에서』의 번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그의 문장과 작품들이 식민지에 어떻게 번역 수용되었으며, 시기별로 그에 대한 독서사의 흔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등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나카니시 이노스케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 나카니시 이노스케 관련 기사와 작품 번역의 현황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문장과 작품이 당대 식민지 조선의 대중(독자)과 접촉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자. 먼저 그에 대한 신문기사들의 추이를 살펴보자. 1925년 8월 화요회, 노동당, 무산자동맹, 북풍회 등 4개 단체 합동 강연회 연사로 여성 운동가 오쿠 무메오와 함께 초청된 나카니시가 경성에 온다는 소식부터<sup>7)</sup>, 그의 조선 도착, 경성 유숙, 강연회의 실황과 일본 국수회의 습격, 4개 단체 관련자 및 형평사 회원과의 회식, 프로예맹 준비를 겸한 조선문인의 환영회, 고별 강연의 무산 등이 당시 『조선일보』, 『시대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연이어 게재되었다. 이들 기사에서 그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조선’을 제재로 작품을 쓰는 “조선을 이해하는 유일자” 등으로 식민지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1925년 후반에도 당시 대역 사건으로 조선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박열(朴烈)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관련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6) 이원동, 『『汝等の背後より』의 수용·번역과 제국적 상상력의 경계』, 『어문론총』 제68호, 2016.6.

7) 『사상운동의 투사 中西씨와 奧여사』, 『동아일보』 1925.8.15.

수 있다. 잘못된 기사와 정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옥중의 박 열이 “자기의 친우인 소설가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조현영, 김학 원 삼씨를 전보로 불”<sup>8)</sup>렀다거나, 박열 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여성‘주의자’인 니야마 하쓰요(新山初代)가 교통노동쟁의로 투옥되었던 나카니시의 출옥 환 영회에서 가네코 후미코의 소개로 박열을 만나 대역사전에 가담하게 된 사연 등을 전하고 있다.<sup>9)</sup> 천황의 시역을 도모하다 검거된 박열 사건은 당대 식민 지인들에게 큰 흥분을 주었다. 박열과,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의 옥 중의 일거수일투족이 ‘동경발’로 전해졌다. 이들 기사를 통해 나카니시는 식 민지 대중의 ‘영웅’이었던 박열의 일본인 친우로서 각인되었다.<sup>10)</sup>

나카니시는 이처럼 억압받는 조선 민족의 곤경을 이해하고 돕는 조선의 ‘친구’로 식민지 대중에게 자리잡았다. 운동가로서 그가 가진 이러한 면모는 조선을 제재로 한 그의 소설, 특히 그 중에서도 번역을 통해 소개된 그의 작 품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까지 파악한 나카니시의 작품이나 글이 조선어로 번역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번역자	매체	발행연도	비고
1	汝等の 背後로서	이익상	매일신보	1924.6.27. ~11.8.(124회)	汝等の背後より(改造社, 1923)
2	汝等の 背後에서	이익상	『문예운동』사	1926.7.	상동
3	열풍	이익상	조선일보	1926.2.3. ~12.21(311회)	熱風(平凡社, 1928)
4	새로운 민족문학의 수립		문예운동2호	1926.5.	
5	민족사상의 수립		조선일보	1925.12.25~26	
6	민중의 봄은 내하(奈何)		조선일보	1926.1.1.	

8) 『명년2월을 고대하며 옥중에서도 호방한 생활』, 『동아일보』 1925.12.14.

9) 『옥중의 박열 삼일간을 단식』, 『조선일보』 1925.11.28.

10) 1925년 이후에도 그는 식민지 저널리즘에서 소환되었다. 조선의 사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배 성룡은 1925년 나카니시의 조선 방문 당시 있었던 국수회의 강연 습격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그를 회고하는가 하면(배성룡, 『조선사회운동소사』13, 『조선일보』 1929.2.9), 일본대중당의 내분에서 나카니시가 제명으로 얻어맞아 부상당한 소식도 전하고 있다.(『개회벽두에 50명이 난투』, 『조선일보』 1929.6.17)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나카니시 작품의 조선어 번역이 1924년부터 1926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매일신보』에서는 번안물이 창작물과 비슷한 비중으로 연재되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기쿠치 칸의 『불꽃』, 『제2의 키스』 등을 비롯한 일본소설의 번역도 적지 않았다.<sup>11)</sup> 나카니시의 작품도 『매일신보』와 『조선일보』에서 각각 한 편씩 번역 연재되었는데, 원작의 발표와 번역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汝等の背後より』는 개조사에서 192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매일신보』에 번역 연재되었으며, 두 해만에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열풍』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도 전에 조선에서 번역 연재되었다. 일본어 단행본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확정해야 하지만, 『열풍』의 원고가 조선에서 먼저 번역 연재된 후에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는 “작자 중서이지조(中西伊之助)씨가 작년 여름에 조선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를 느낀바가 있서 특별히 조선을 사랑하는 표적으로 장편 창작 한 편을 본지에 발표하게 된 것”이며, “조선민중과 친함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금번에도 이 작품을 특별히 조선 민중에게 한 선물 바친 것”<sup>12)</sup>이라고 연재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 작품이 처음부터 조선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재 예고에 뒤이어 조선 독자에게 건네는 나카니시의 인사가 이어진다.

작자(作者)의 말-『열풍』은 인도 민족운동의 일부분 장면을 그리어 낸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역사소설이라 하여도 조κειται. 그러나 역사소설도 아닙니다. 이 작품 가운데에는 작자의 각색도 있고 공상도 있습니다. ‘힌두, 스와라지’란 말은 확대바든 인도민족이 가진 다만 한아의 이상정신입니다. 그들은 이 이상정신 아래에 비장한 싸움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열풍』이란 이 작품은 이 이상정신 아래에 활동하는 새로운 청년남녀와 영길리의 디배정신에서 나온 교육을 바더 양성된

11) 이회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 연구」(1), 『어문학』 제112집, 375~377쪽.

12) 『소설예고 熱風』, 『조선일보』 1926.1.22.

자각이 엮는 청년남녀의 비절애절한 런애틀 비극을 묘사하라 한 것입니다. 멸망할 것과 살아야 할 것의 필연한 운명을 그리어내라 합니다. 나는 이 일편을 조선의 청년남녀 제군에게 드리게 된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sup>13)</sup>

나카니시는 『열풍』이 인도 민족의 이상적 정신 아래에서 활동하는 청년남녀와, 영국의 지배 정신을 교육받은 자각없는 청년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애적 비극’을 통해서 ‘멸망할 것과 살아야 할 것의 필연한 운명’을 그리는 소설이라고 설명하며, 이 소설을 ‘조선의 청년남녀 제군’에게 드린다고 적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소설의 배경인 인도를 조선으로, 영국을 일본으로 전환해서 조선인 청년들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식민지 조선에 번역된 나카니시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농민과 노동계급을 소재로 한 작품들 보다 지배-피지배의 식민지 ‘민족 문제’를 다룬 것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카니시 스스로도 식민지의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려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汝等の背後より』의 번역의 양상을 검토해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汝等の背後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나카니시의 소설이자 조선어로 출판된 유일한 단행본이며, 4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재간행할 만큼 많이 읽혔던 작품이었다.<sup>14)</sup>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작품의 번역자인 성혜이익상의 소개 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

13) 中西伊之助, 「소설예고 熱風-작가의 말」, 『조선일보』 1926.1.22. (소설예고는 5일간 반복해서 게재되었다)

14) “무엇이나 알고 싶은 것은 무르시오”라는 『조선일보』의 「상의」란에서는 흥미로운 독자의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 “【문】 몇해전에 귀지에 런제되었던 열풍(熱風)(中西伊之助씨 작(作)이 그간 소설책으로 출판되었습니까? 만일 출판되었다면 어찌로 주문하면 살수있겠습니까? 그 동인(同人)의 작품 『汝等の背後』라는 책은 어찌로 주문해야 되겠습니까. 일독자(一讀者) 【답】 일(-), 경성(京城) 종로이정목팔이(鍾路二丁目八二) 번지 박문서관으로 이(二), 이즉 발행 못되었습니다(『상의』, 『조선일보』 1929.12.4) 이 문답을 통해서 『열풍』은 조선어 단행본이 간행되지 않았으며, 『汝等の背後에서』는 1929년 당시 박문서관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汝等の背後에서』는 문예운동사, 如是社, 건설사, 박문서관 등에서 재간행되었다.



“이 소설의 원작자 中西伊之助군은 현금 일본문단의 신진으로서 프로작가의 중진이외다. 군은 일찍이 조선에 유하여 조선을 사랑함이 누구에게든지 뒤지지 아니 할만큼 深切하였었습니다. 군의 예술은 시달키어 무기력한 민중에게서 받은바 의문과 정열 가운데에서 자라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세작 『赭土に芽むもの』를 읽더라도 그것을 누구든지 곧 느낄 것이외다. 그의 작품의 전편을 통하여 流露되는 것은 정열이외다. 이 정열은 곧 군의 작품의 생명이외다. 지금에 譯載하려는 『汝等の背後より』도 전혀 조선에서 취재한 것으로 작중에 나오는 인물과 지방도 다 조선이외다. 지방색이 농후한 작품이외다. 역자가 특히 이 작품을 택한 것도 ‘조선’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으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중서(中西)군이 어떻게 말한 것을 소개하고자 함이외다. 그리하여 역자는 금년초에 중서군에게 解譯을 乞하였더니 군은 자기의 작품이 해석되어 조선동포의 읽게 됨에는 크게 환희한다고 만족히 여기는 뜻으로 쾌낙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汝等の背後로서』란 작품의 해석이 비로소 금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sup>15)</sup> (밑줄 : 인용자)

이익상은 이 작품을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우선, 그는 나카니시가 ‘일찍이 조선에 유하여 조선을 사랑함이 누구에게든지 뒤지지 아니할’ 작가이며, 그의 예술이 ‘시달키어 무기력한 민중에게서 받은바 의문과 정열 가운데에서 자라난’ 문학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출세작 『赭土に芽むもの』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익상은 『赭土に芽むもの』에 나타나는 민중성을 고평하고 있다. 궁핍한 조선 농민의 현실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받는 광산노동자 등에 주목한다면, 『赭土に芽むもの』가 번역에 훨씬 합당한 작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익상은 왜 『汝等の背後より』를 번역한 것일까. 그는 『汝等の背後より』가 “전혀 조선에서 취재한 것으로 작중에 나오는 인물과 지방도 다 조선”으로 “지방색이 농후한 작품”이며, 자신이 특히 이 작품을 택한 것도 “조선”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으며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것을 중서(中西)군이 어떻게 말한 것을 소개하고자 함”이

15) ‘辯言’, 『汝等の背後로서』(1), 『매일신보』 1924. 6. 27.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익상의 소개 글을 독해해 보자면, 나카니시의 작품 중에서도 『汝等の背後より』가 조선의 ‘지방색이 농후한 작품’이며 무엇보다 나카니시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요컨대, 이익상 등의 조선의 번역자들에게는 나카니시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번역할 것인가를 선별할 때 『赭土に芽むもの』이 가지고 있는 농민문화적 성격, 비참한 노동자의 정황 등에 대한 고발 등의 계급성보다는 『汝等の背後より』에서 드러난 ‘조선청년’의 저항운동이라는 민족적 맥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소설 이외에 번역 소개된 그의 비평과 시론들도 나카니시 수용의 맥락에서 ‘민족적’ 입장의 측면이 강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위의 표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카니시는 KAPF의 기관지였던 『문예운동』 2호에 ‘새로운 민족문학의 수립’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예술이 그 민족의 독립성을 양육”하며 “정치상으로는 여하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대의 한 시대상에 불과한 것이고, 민족의 독립성은 결코 침범되지 않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고대 희랍에서 찾으면서 “무력을 자랑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스파르타인은 오히려 희랍의 멸망을 초월하던 한 원인”이었고, “영원의 승리지는 평화이고 평화스러운 문화주의”였으며, 그리스의 경우 아테네였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현대에서 “인류

16) 물론, 이것만으로 『汝等の背後より』가 유일하게 번역된 이유를 모두 설명하긴 힘들다. 와타나베 나오키가 지적하고 있듯이,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조선 관련 소설의 표기 언어가 가지는 원근법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나카니시 소설에서 일본인/조선인 등장은 그 표기 언어에 따라서 소설 인물의 원근화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赭土に芽むもの』는 처음은 조선인 농민 김기호의 시점에서 총독부의 토지 조사에 의한 수탈을 당한 후, 몰락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투옥되는 과정 등을 묘사한다. 그러다가 일본인 신문기자 마키시마 히사키치(槇島久吉)의 시점으로 바뀌어 ‘F구미 광산’의 노동자 학대를 고발하고 신용훼손죄로 체포, 구금되는 과정이 그려진 후에 감옥에 갇힌 마키시마가 사형수 김기호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에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김기호는 소설에서 원경화되며 대화가 사라지고 만다. 언어에 의해 등장인물의 성격이 제한되고만 것이다. 마찬가지로, 『不逞鮮人』 역시 조선인 ‘주인’의 서툰 일본어는 그 인물의 성격을 후경화시키며, 우스이 에이사쿠는 물론 그것을 읽는 일본어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배가시킨다. 조선인/일본인의 시점을 오가는 표기언어가 주는 인물성격의 원근법은 번역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다. 『汝等の背後より』는 거의 조선인들만 등장하는 작품으로 언어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한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조선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이다.(와타나베 나오키,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조선 관련 소설에 대해서』, 김태준편,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문화의 지도를 예술운동에서 구하는” 러시아 민족의 사례를 들며,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그 증거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끝에서 그는 조선의 동지(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조선민족은 고대회람에 있던 아테네인 것이다. 광휘있는 4000년의 역사는 즉 평화스러운 문화주의에 일관되었었다. 그래서 그곳에 위대한 예술을 가지고 왔다. (이하 3행략)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구래의 조선예술을 필요치 않는다. 구래의 조선예술은 국립박물관에 역사적 존재로서나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하 5행략) 우리들은 구래의 일체의 예술을 부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적 사명, 민족적 사명을 성취하고 발전시킬만한 예술을 요구한다.(이하 7행략) 이것이 조선의 새로운 예술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17)</sup>

나카니시가 요청하는 ‘새로운 인류적 사명, 민족적 사명을 성취하고 발전시킬만한 예술’이란 무산 계급 운동에 토대한 프로문학일 터이지만, 그 중요한 논의의 한 축은 역시나 ‘민족’에 놓여져 있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운동의 조선인 동료들의 기관지에 실린 이 글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읽힌 것이었다면, 『조선일보』에 실린 『민족사상의 수립』은 나카니시가 ‘조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과,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이 나카니시를 어떤 관점에서 수용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이 글은 한 민족에게 ‘언어’와 ‘사상’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나카니시는 그 첫 번째 사례로 러시아를 거론하며 “순(純) 러시아 민족은 동아(東亞)로부터 원정(遠征)한 ‘로마노프’가(家)의 선조에게 정복’되었지만, “러시아 민족에는 사랑할만한 언어가 있었고 존중할만한 자유사상에 배양된 ‘슬라브’ 사상이 있었”다고 서술한다. 러시아 민중이 무력의 탄압을 받은 암흑시대를 이겨내고 러시아 혁명의 “그때”를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진 “광영있는 언어와 사상” 때문이며, 슬라브 민족의 언어와 사상이 게르첸과 크로포트

17) 中西伊之助, 「새로운 민족문학의 수립」, 『문예운동』 2호, 백열사, 1926년 5월.

킨, 바쿠닌과 레닌의 사상과 러시아 예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카니시는 다음으로 유대인의 사례를 든다. 나카니시는 “노동자에게는 향토가 없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유태사상에서 연원한다고 설명한다. 유대인은 “세계의 무력적 우월민족에게 박해되고 능욕되고 학살되면서도 도리히 피등(彼等)은 세계를 정복코자 하는 중”이다. 즉 ‘프로레타리안 인터내셔널리즘’이 주창하는 “‘민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절규는 국가주의자의 일대 협위(脅威)”가 되고 있는데, 이 “대사상(大思想)이아말로 세계에 가향(家鄉)이 없는 그 유태사상의 근본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에게 섞인 유대인의 혈통을 근거로 영토와 국가가 없이 떠도는 유태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흥미롭다. 나카니시는 “유태사상이 엄존한 이상 유대민족은 망(亡)하지 않는 것”<sup>18)</sup>이라고 결론내린다.

유대민족의 사례를 있는 것은 “영국의 강권에 학대를 받으며 있는” 인도 민족이다. 나카니시는 “인도 민족이 가진 정신 사상은 저 ‘앵글로 썩손’ 민족에게 대하여 영원히 부단의 항쟁을 계속하는 중”이며, 마찬가지로 인도 민족에게 사상과 철학과 예술과 종교가 있으며, “강렬한 정신운동이 있는 이상에는 인도 민족은 ‘앵글로썩손’ 민족 보다는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민족이 “국민교육회의를 개(開)하여 영국정부로부터 전혀 독립한 국민대학을 창립”하여 그 교육 아래 “인도 민족의 가진 철학, 과학, 문학 내지 미술 교육”을 하며 영어를 배척하고 벵골어와 범어를 사용하는 등 영국의 탄압에도 반항하고 있는 인도의 사례를 든다. 러시아, 유대, 인도의 사례를 거론한 후 나카니시는 “4천년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은 슬라브, 유대, 인도의 제 민족에게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지언정 저열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조선은 응위한 민족정신을 기초로 한 독자의 심각한 사상 철학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sup>19)</sup>라고 조선 청년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9월 5일 조선에서 돌아와서”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1925년 8월의 4개 단체 초청

18) 中西伊之助, 『민족사상의 수립』(1), 『조선일보』 1925.12.25.

19) 中西伊之助, 『민족사상의 수립』(2), 『조선일보』 1925.12.26.

강연회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저널리즘에 번역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글들을 살펴보았거나와, 조선어 번역의 글들에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정적 입장과 과거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를 극복한 새로운 프로레타리아 신문화 건설을 독려하는 나카니시의 관점과, 나카니시의 작품 및 사상을 '민족적' 입장에서 번역하고 있는 조선 저널리즘의 필요가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나카니시 이노스케 작품에 대한 조선문단(작가)의 반응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수용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독서사의 흔적들을 검토해 보자. 2절에서는 나카니시 작품이 조선어로 번역된 상황에 주목했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중언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식민지 작가들이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을 원작과 번역 두 차원에서 접했다는 전제 위에서 그들의 발화를 살피고자 한다.

1936년의 『삼천리』사의 설문 「‘조선문학’의 정의-이렇게 규정하려한다!」는 한국문학(사) 연구자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익숙한 자료이다. 삼천리사는 ‘조선문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 문항을 마련하여 당대 조선의 문인들에게 설문했다. 여러 차원에서 논의할만한 이 설문 기사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바로 설문 문항 자체이다. 설문의 주체는 “A. 조선‘글’로, B. 조선‘사람’이, C. 조선‘사람’에게 ‘읽히우기’ 위하여 쓴 것만이 완전한 조선문학이 될 것이외다. 그렇다면 역설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라며 각각의 사례로 설문항을 마련하고 있다. B의 역설적 사례로 편집자는 아래와 같이 설문 문항을 제시한다.

- B. “작가가 ‘조선사람’에게 꼭 限하여야 한다면 中西伊之助의 조선인의 사상감을 기조로 하여 쓴 『汝等の背後より』라든지 그밖에 이러한 類의 문학은 더 一顧할 것 없이 ‘조선문학’에서 제거하여야 옳겠습니까?”<sup>20)</sup>

조선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 설문은 흥미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박영희의 『현대한국문학사』 이래 문학사 논의에서 다루어지며 여러 쟁점을 제공해 왔다. 나카니시 이노스케 논의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작품이 번역된 지 10여년이나 지났음에도 설문의 문항으로 소환될 만큼 나카니시와 이 작품이 식민지 작가들에게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설문주체는 “中西伊之助의 조선인의 사상감정을 기초로 하여 쓴 『汝等の背後より』”라고 이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문에 답한 작가들도 나카니시와 이 작품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독서 경험에 토대해서 답신하고 있다. 조선인이 아닌 외국 작가의 작품을 조선문학 안에 포함시키는데 대부분의 문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화의 인상적인 답변 한 대목을 읽어보자.

“B, 日本 内地人으로서 朝鮮을 取材하여 쓴 것은 中西伊之助씨 외에 木村某 등이 잇사오나, 다갓치 그것은 朝鮮文學이 아닙니다. 中西씨의 印度를 取材한 『熱風』을 印度文學이라고 못 부를 것과 갓치 明白히 그것들은 朝鮮文學이 아닙니다. 그 작가, 언어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잇서도, 朝鮮에 同情을 가진 外人의 旅行記를 죽음 넘은데 불과한 것으로 朝鮮人의 생활 감정을 基調로 云云은 當치안는 말입니다.”<sup>21)</sup>

임화의 답변은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그는 조선을 취재하여 썼다고 해서 조선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근거로 나카니시의 『열풍』을 사례로 든다. 인도를 배경으로 썼다고 그것이 인도문학이 아니듯이, 조선을 취재하여 썼다고 조선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화의 답변에서 그가 나카니시의 작품 중에서 『汝等の背後より』 뿐만 아니라, 『열풍』을 읽었거나 적어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것을 조선문학에 넣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임화는 작가가 일본인이고, 언어가

20) 『조선문학의 정의-이렇게 규정하려한다.』, 『삼천리』 1936년 8월호, 82쪽.

21) 임화, 위의설문, 95쪽.

일본어라는 점뿐만 아니라,<sup>22)</sup>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에 同情을 가진 外人의 여행기를 죽음 넘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선인의 생활 감정을 기초로 운운은 당치” 않은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화는 “中西伊之助의 조선인의 사상감정을 기초로 하여 쓴 『汝等の背後より』”라는 편집자의 작품 해석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는 이미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전성기가 지나고 KAPF도 해소된 직후이다. 일본이나 조선에서 계급문학에 대한 논의 수준도 10년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졌고, 빼어난 프로문학 작품도 집적된 상황이다. 지난 10여년 간 그 프로문학의 중심에 있었던 임화는 나카니시를 조선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선의 생활감정과는 무관한 외부자이며, 그의 작품은 여행기가 지니는 국외적 관찰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인식은 프로문학이 조선문단의 주조(主潮)로 자리잡은 1927년 무렵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인 김동환은 “인생 또는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볼 줄 아는 균중”을 ‘신흥민중’이라 정의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기에 족한’ 신문에 중에서 “내 자신이 가장 감격을 받던 여러 작품을 소개”하는 『신흥민중과 문(文)과 검(劍)』<sup>24)</sup>을 연재한다. 김동환은 소설 부문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 『시멘트 통속의 편지』의 내용을 길게 소개한다. 그 소설은 한 노동자가 시멘트 통 속에서 발견한 편지에 적힌 사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편지를 보낸 여직공은 자신의 애인인 시멘트 공장 청년 노동자가 시멘트를 만드는 기계에 사고를 당해 전신이 분쇄되어 수백 통의 시멘트에 섞였고, 그의 뼈와 살 그리고 피가 뒤섞인 이 시멘트들이 은행과 회사와 같은 큰 건물의 벽이나 부호와 귀족의 대저택 화장실과 은밀한 침실의 밑바닥에도 발라졌을 것이라며, 이 시멘트를 쓰는 노동자들이

22) 여기서 임화의 발화가 일본어 단행본 『汝等の背後より』를 전제로 발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나카니시의 『汝等の背後より』가 조선의 생활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이 소설이 번역되었던 1926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汝等の背後에서』(中西伊之助 작, 이익상씨 역) 원작은 조선을 재료로 하고 혁명적 기분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조선사정에 稱히 어두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보아서 어떠한 감명을 아니 받지 못할 작. 정가 금일원. 경성부 4번지 문예운동사”(『신간소개』, 『동아일보』 1926.9.17.)

24) 김동환, 『신흥민중과 문(文)과 검(劍)』(총5회), 『동아일보』 1927.9.23~9.27.

그 사연을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프로레타리아의 참경을 다룬 하야마 요시키의 여러 다른 작품을 거명한 뒤에 김동환은 신흥 민중과 관련된 또 다른 문학 작품의 사례로 “후지모리 세에키치(藤森成吉)의 『礪右衛門』이나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그림없는 그림책』이나 **좁 낀 것으로** 中西伊之助의 『너희들의 등 뒤에서』나 뜨루게네프의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위고의 『레미제라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 형제』 등 다 필독할 문학들”이라고 적고 있다.<sup>25)</sup>

여기서 김동환이 무심히 내뱉은 ‘좁 낀 것으로’라는 구절은 숙고해 볼 대목이다. 김동환이 이 글을 쓰는 1927년의 시점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른바 ‘신경향과 문학’의 단계를 지나 프로문학이 주류가 된 시기이다. 알다시피,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이 한참 읽히던 1920년대 초반으로부터 그것이 번역되었던 1926년 무렵까지는 한국문학사에서 ‘신경향과 문학’이 전개된 시기로 설명된다. 파스쿨라와 염군사의 두 동인 집단이 나카니시 이노스케 환영회를 준비하며 KAPF가 태동했다면, 여기에는 나카니시 이노스케 문학에 대한 공감과 수락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즉, 신경향과 문학의 출발기에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문학은 식민지 조선 현실과도 통하는 동시대성의 작품이었다면, 나카니시 방문 2년 여 만에 독자로서의 김동환의 감각에서 『너희들의 등 뒤에서』는 ‘좁 낀 것’으로 그 위상이 변화했다. 김동환의 설명에서 ‘좁 낀 것’이라는 『너희들의 등 뒤에서』의 뒤를 잇는 뜨루게네프의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등은 신경향과 문학의 등장을 촉구하는 비평이 거론하는 주요 텍스트들이다. 김동환의 무의식적인 저 발화는 신경향과 문학의 발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성과 목적의식성을 내세우며 등장한 본격적인 프로문학 시대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문학이 되었다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6)</sup>

25) 김동환, 『신흥민중과 문(文)과 검(劍)』(5), 『동아일보』 1927.9.27.

26) 파인 김동환의 나카니시 이노스케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삼천리사의 ‘조선문학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거니와, 알다시피 잡지 『삼천리』를 주재한 것은 김동환이다. 조선의 문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라는 큰 기획을 김동환이 남의 손에 맡기진 않았을 듯하다. 따라서, 이 설문의 질문 문항은 김동환이 만든 것이며, 이 안에 있는 “조선인의 사상감정을



그렇다면,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동시적 감각 속에서 식민지 문단에 영향을 끼쳤던 시기, 즉 『赭土に芽ぐむもの』(1922)에 연이어 『不逞鮮人』(1922), 『汝等の背後より』(1923)가 발표되고, 『汝等の 배후로써』(1924)가 번역되었으며, 조선 방문을 계기로 프로문학의 출범을 촉진한 1925년까지의 시기에 식민지 조선의 문단에서는 나카니시와 그의 작품을 어떻게 인식하며 수용했을까? 이 글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문학과 식민지 조선의 신경향과 문학의 출발이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카프를 성립시킨 두 그룹인 '파스쿨라'와 '염군사' 소속의 조선 작가들이 나카니시와 그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기 위해 우선, 1925년 8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경성 방문 당시로 돌아가 보자.

먼저 주목해야 할 자료는 1925년 8월 16일 RH씨가 조선일보에 실은 「中西氏를迎함」이다. 다소 길지만 이 글의 전문을 인용한다.

씨의 작품만으로서도 씨가 얼마나 조선에 친한 동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작품의 대개가 광명을 직전(直前)한 미명(未明)에서의 조선의 고민-곤혹-초조-그러면서도 어데까지든지 광명을 향해서 뻗어가려는 조선청년을 취재(取材)로 해서 우리

---

기조로 하여 쓴 『汝等の背後より』라는 작품에 대한 인식은 김동환의 작품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을 1927년의 『신홍문학과 문과 검』의 진술과 맞대어 놓고 보자면, 일본 東洋大學 유학 시절에 나카니시를 보았거나 혹은 조선에서 번역본을 본 김동환이 이 작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이후 식민지 문단의 급격한 전개 속에 그 자신이 몸을 담으면서 이 작품을 '조금 낡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1930년대 '조선문학의 정의'의 화두를 고민하면서 이 작품이 다시 그의 의식을 비집고 나온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만한 문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 작품의 독서가 김동환의 창작에 끼쳤을 영향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알다시피, 김동환은 함경도와 두만강 등, 조선의 변방의 원시적이고 거칠지만 어떤 원초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북국의 정서를 잘 표현한 시인으로 1920년대 중반에 조선 문단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온 시인으로 평가된다. 서사시인 『국경의 밤』(1925. 3)과 『승천하는 청춘』(1925.12)을 떠올려 보면, 나카니시가 『赭土に芽ぐむもの』과 『汝等の背後より』에서 환기시키는 '조선'과 '조선청년'에 대한 감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록 평안도와 함경도라는 지역적 배경은 다르지만, 서울이라는 중심성에서 멀리 떨어진 거칠고 원시적이지만 자본주의와 문명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원초적 생명력을 지닌 인물들과 국경과 강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경찰과 국경수비대가 등장하여 서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일본과 투쟁하는 조선의 청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카니시와 김동환의 서사시를 관류하고 있다. 더 증거를 찾아야 할 터이지만, 어쩌면 김동환의 두 서사시는 『汝等の背後より』에서 조선 북부의 풍토와 인간의 특성과 배경(『국경의 밤』)과 일본에 대항하는 조선의 청춘남녀의 서사(『승천하는 청춘』)의 무의식적 암시를 얻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조사해 보고자 한다.

들이 가지는 이 같은 밝은 방면에 감격한 경건한 마음과 건지(健擘)한 붓대를 들어 씨의 동쪽 가운데에도 우리들같이 불만 불평의 덩치인 일본 민중에게 호소한 바이 많았다. 『楮土に芽ぐむもの』가 그러하고 『汝等の背後より』가 그러하고 『不逞鮮人』이 그러하다. 그렇다. 북만으로 쫓기어 가서는 조선의 폭풍우를 치여가는 그야말로 불령선인을 찾아간 때도 있다. 그리하여 이 지구 위에서는 결코 어깨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惡靈이 일본의 지배계급인 것을 더욱 기억을 여물게 하였다. 또다시 씨는 벗겨진 산과 말라빠진 논때기에 목을 매고 사는 벽촌의 농민-흙에서 흙으로 하루와 일생을 지내는-고통을 표백할 말까지 잊어버린 농민을 찾아간 때도 있다. 이같이 밝으려는 광명과 침체된 암흑이 동거하는 조선의 양면을 여지없이 본 씨이다. 이상의 창작은 씨가 본 朝鮮魂의 고백이요 짓밟히는 조선의 대변의 기록일 것이다. 혹자가 이르기를 이것을 씨의 한 예술적 관조로서 是事한 것이라고 한 대면 우리는 이 反證에 너무도 재료가 많으며 씨의 정의를 믿는 바 너무도 많은 괴을(sic) 잘 안다. 과연 씨는 종족적 계류(繫累)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부르짖음을 씨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회구와 기대를 씨 또한 느끼고 우리 이상 그 貫實에 초조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씨가 평양 某일문 신문에 필화(?)로 處刑까지 받은 일이 있지 않은가. 마치 우리가 우리를 살리려는 노력에 반한 희생-보다 그 이상을 씨는 감히 받은 것이 아닌가. 이 같이 조선을 정의로서 살리려는 씨-원고지 위에서만 혁명을 지결대는 一束三文의 문사로는 추종을 허할 바 아닌 의분에 타는 씨-여기에 비로소 씨의 유모어-약연(躍然)한 씨의 面影을 얻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씨를 이해하려느니 보다 이점에서 씨를 보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씨는 일본의 사회운동에 나타났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까지든지 반역을 말지 않겠다는 씨이기 때문에 동경운수 부조합에 관계했던 관계상 東京市電盟罷에 희생자로 또 다시 뇌옥의 쇠사슬에 얼키는 몸이 되었던. 몸은 비록 意思의 밖에 매인바 되었으나 정의 일념의 그의 마음은 붙잡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후에는 프로레타리아 예술운동에 나타났다. 이후의 씨의 생활은 잡지로 신문으로 또는 저작으로 도리어 제군이 이는 것이 많을 것을 믿는다. 『楮土に芽ぐむもの』,

『不逞鮮人』은 아직도 우리말로 驛은 되지 않았으나 이미 역이 되어 어느 신문에 발표된 지 오래인 『汝等の背後より』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은 것은 너무도 많이 말해 버린 바임으로 재론할 여지도 없거니와 定評을 들어 다시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같이 씨와 우리와 엮어매인 정서 가장 흥금을 통할 수 있는 이해 깊은 것도 다시 말할 것까지 없는 것이다.

그 동지가 조선에 온다.

조선을 떠났던 씨가 다시 조선에를 찾아 왔다. 수년전 조선을 떠나갈 적에는 고영(孤影)이 오히려 초연한 바 있더니 다시 씨가 오는 조선에는 광명을 생장시키는 수많은 우리 동지의 환호 속에서 역두에 선 씨의 감개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씨를 잃어버린 뒤에 우리는 씨가 일본 해방운동에 증견에 서서 건투함이라든지 프로레타리아 예술운동의 제일인자로 잡지 『文藝戰線』 최근에 『일본 프로레타리아 문예연맹』으로 戰鬪文野에 焦事하는 씨를 대할 때 우리의 감격은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생각하여도 나머지 있는 일이 아닌가.

동지 中西伊之助씨가 조선에 다시 왔다.<sup>27)</sup>

(밑줄 : 인용자)

‘RH’는 나카니시의 여러 이력과 조선과 관련된 세 소설에 대해 파악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나카니시가 평양 신문사에서 근무했고, 필화로 인해 형을 산 후 일본으로 귀국한 사실도 적고 있다.<sup>28)</sup>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도쿄시전

27) RH氏, 『中西氏를 迎함』, 『조선일보』 1925.8.16.(조간3면)

28)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1887년 일본 교토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호적상 '사생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소년 시절은 외조부모 집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으며, 육체노동으로 돈을 모아 1905년 혼자 도쿄로 갔다. 얼마 후 러일전쟁 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중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도 신문사 습격에 가담하다 체포되었다. 인력거꾼, 신문팔이, 오텡팔이 등을 하면서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다. 군대를 갔다가 1909년 경 재혼하여 조선에 이주했던 어머니에 의지해 평양에 건너갔다. 『평양 일일신문』 기자가 되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그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테라우치 총독을 공격하고 대자본가 후지타 덴지로(藤田伝三郎)의 광산 노동자 학대를 폭로하며 실력 기업을 토했기 때문에 그 신문사는 망했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小林茂夫, 『解説』 中西伊之助 『日本 プロレタリア文學集』 6巻, 新日本出版社, 1985, 500쪽)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1914년 7월에 수감되었다. 평양감옥에서의 혹독한 옥중생활의 경험이 이후 식민지배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정신의 기초가 된 것으로

차의 동맹과업으로 다시 감옥 생활을 거쳐 『문예전선』과 ‘문예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황들도 소개되고 있다. ‘RH’가 나카니시의 『赭土に芽ぐむもの』, 『汝等の背後より』, 『不逞鮮人』 등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대목들은 흥미롭다. ‘RH’는 나카니시가 ‘폭풍우 치여가는 조선의 불령선인’들을 찾아가고, ‘벗겨진 산과 말라빠진 논때기에 목을 매고 사는 벽촌의 농민, 고통을 표백할 말까지 잊어버린 농민’을 찾아간 기록이 이들 작품이며, 그가 본 “朝鮮魂의 고백이요 짓밟히는 조선의 대변의 기록”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RH’는 밝히려는 광명의 지향과 암흑의 공존이라는 조선의 양면을 일본 민중에게 호소한 것으로 고평하고 있다.

펜네임을 ‘RH’로 쓰는 이가 누구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문예운동상의 ‘동지’로서 나카니시를 호명하고 “원고지 위에서만 혁명을 지껍대는” 문사들을 비난하며 ‘의분에 타서’ 행동하는 일종의 혁명가로서의 나카니시를 고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정치 투쟁으로서의 문예를 주창했던 ‘염군사’ 동인 중 한 사람일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하루 뒤에 『시대일보』에 실렸던 ‘염군사’ 동인들의 나카니시 환영사를 일별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시대일보』 1925년 8월 15일자 지면에는 「동지 中西氏를 迎하야」라는 제목하에 ‘염군사’ 동인인 이적효, 김영팔, 최승일, 박영대, 김온, 송영, 효천(曉天)<sup>29</sup> 등 7인의 환영사가 실려 있다. 이들 환영사에서는 ‘염군사’ 동인들이 나카니시의 작품을 폭넓게 읽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들은 나카니시와 “책으로는 친한지 오래”(김영팔)이고, 『赭土に芽ぐむもの』, 『不逞鮮人』을 거론하며 “우리를 알기에는 우리 외에 오직 한분 中西씨”가 있다면서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이 같은 재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김온)보려 하는가 하면, 프로레타리아의 심적 반영이 드러나 있는 후세 다쓰지와 함께 쓴 “『사형수와 재판장』<sup>30</sup>의 작가”(曉天)로 이해되기도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작품 평을 해

로 알려져 있다. 출옥 후 만주로 건너가 잠시 일했다가 1915-16년 경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이때의 경험에 토대해 일본인 신문기자와 조선인 빈농을 주인공으로 삼아 1910년대 초반 평양에 사는 조선인들의 곤경과 일본인 식민 이주자의 생활상, 감옥의 열악한 환경 등을 생생하게 그린 『赭土に芽ぐむもの』의 붉은 흙에 싹트는 것』을 발표했다.

29) 효천이 누구의 필명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둔 동인도 있다. 이적효는 “씨의 작 『汝等の背後부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허술한 미즈근한 純化되지 못한 부질없는 청년이 작자의 한 構想으로의 결함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 같은 결점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적효는 나카니시 작품이 조선 청년을 사상이나 실천에 투철하지 못한 청년으로 그렸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조선 청년)이 현실에서의 그러한 결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동인들의 문장 중에서도 최승일과 송영의 환영사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承一

깃뿔힌 자유를 살리려고 예술을 가두에로 해방한 동지를 대하게 되었다. 조선에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과 楨군사-일본에 戰鬪文野와 氏-이 같은 처지에 서서 우리와 氏 거기에는 감격한 극적 焔이 躍然한 생각을 마지 못하겠다. 비록 楨군사가 地熱로 과부친 이때나 폭발! 약진! 突貫!이 머지 않은 이때 此와 作戰餘에 지내는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더욱 그러한 감이 不無하다.

序論이 지난 이때에도 단칸방 안에서만 헛소리들을 하는 분-배속 편한 예술론을 운운하는 선생들은 冷汗三斗를 내지 않을 것이다-楨군에 서울까지 오는 건투야말로---

#### 宋影

조선에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해에 焔群이라는 습작이라든가, 요즘의 누구누구의 序論이라든지 통틀어서 예술운동이라고 명언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楨군사는 부끄러운 말이나 벌써 3년째나 되는 오늘에도 오히려 곱들거리기만이 일수이고 요즘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역시 책임있게 해 나갈지가 의문인 오늘의 貧弱 千萬 嘔吐百出의 이로서 中西씨-적어도 일본의 예술운동건설에 유일자인 그를 만나기에 부끄러움을 마지 않는다. 창조의 고민도 분수가 있고 난산도 분수가 있으며 灰滅도 분수가 있는 것이

30) 이 책의 원작은 布施辰治·中西伊之助, 『裁く者・裁かれる者』, 自然社, 1924.

아닌가? 언제나 하려느냐? 자타가 다같이 격려를 마지않고 나올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회에--31)

최승일은 나카니시를 “예술을 가두어로 해방한 동지”로 호명하고,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과 염군사-일본의 전투문야와 씨(나카니시 이노스케)”라는 등가 관계를 제시한다. 이어서 그 대척점에 “序論이 지난 이때에도 단칸방 안에서만 헛소리들을 하는 분-뱃속 편한 예술론을 운운하는 선생들”을 불러낸다. ‘序論’은 더 조사해 봐야 하지만, 아마도 프롤레타리아 예술론을 주창했던 당시의 비평을 의미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단칸방 안에서만 뱃속 편한 예술론의 헛소리를 하는 선생들은 어쩌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문학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염군사 동인의 문학적 미숙성을 비웃으며 연대에 미적됐던 ‘파스쿨라’의 김기진과 박영희를 겨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최승일에게 나카니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에서 염군사의 방향성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의미화된다.

송영의 환영사에 드러난 자기 인식은 최승일에 비해서는 엄격한 자기비판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조선에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이 존재하는가 질문하면서, “지난해에 焔群이라는 습작이라든가, 요즘의 누구누구의 序論이라든지를 통틀어서 예술운동이라고 명언할 자신이 있느냐?”고 재차 묻는다. 「焔群」은 발행이 무산된 염군사의 동인지를 일컫는다면, ‘누구누구의 序論’이란 앞서 최승일의 환영사에서도 확인되는 바, ‘파스쿨라’계의 비평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序論」이 파스쿨라계의 비평이라면, 송영은 당시 신홍문예의 두 축이었던 ‘염군사’와 ‘파스쿨라’ 두 집단 모두의 문학이 “일본의 예술운동건설에 유일자”인 나카니시에 비추어 부끄러운, 예술운동에 미달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언제하려느냐”며 자신을 포함한 사회주의 문예에 공감하는 이들 모두가 예술운동을 위해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환영사가 실린 17일 저녁 ‘염군사’와 ‘파스쿨라’ 동인들은 나카니시 환영회를

31) 「동지 中西氏를 궤하야」, 『시대일보』 1925.8.17.

겸한 '조선프로문예연맹준비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나카니시는 염군사 동인들에게 조선 프로문예가 갈 길의 선취자이며 동시에 염군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였다.<sup>32)</sup>

그렇다면, '파스쿨라'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나카니시와의 관련이나 프로연맹의 출범에 더 적극적인 것은 '염군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파스쿨라' 역시 식민지 현실을 강조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과의 결별을 통해 신문예를 주창하면서 나카니시를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 아니, 파스쿨라의 중심 인물이었던 팔봉의 회고는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염군사' 동인들 못지 않게 김기진 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일러준다.

“나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친 주요한 사실 몇 개만을 이제 펼쳐놓겠다. 中西伊之助라는 사람이 『붉은 흙에서 싹터나는 것』이라는 소설-일본인한테 압제받고 착취당하면서 억울하고 빈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실감나게 묘사한 소설책을 출판했다. 21년 가을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읽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6, 7개월 전에 두 번이나 단편소설을 써가지고 『개조』 잡지에 보냈다가 나중에 보냈던 원고는 잡지사에 가서 도로 찾아왔던 일도 있지만 그것을 나카니시의 작품에다 비교하면 내가 조선사람의 현실을 일본인보다도 깊이 관찰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판단할밖에 없었다. 조선인을 보는 눈이 일본인만도 못하다서야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sup>33)</sup>

인용한 대목은 도쿄의 릿쿄대학 유학 중의 청년 김기진에게 나카니시 이

32) 『동지 中西氏를 攄하여』의 환영사 중 김영팔의 환영사는 나카니시와의 (가상)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김영팔의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에 나카니시는 “더욱이 염군사 동인이라시니 말이지 昨年 일이 생각납니다 그려”라고 답하고 있다. 와타나베 나오키에 따르면, 1924년 8월 5일부터 4일 동안, 나카니시는 경성에서 개최된 하기강습회에 초청되어 조선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강습회 자체가 금지되어 모처럼 조선까지 온 나카니시는 강연을 할 수 없었다. 나카니시가 강습회에서 할 강연의 원고는 『讀賣新聞』(1924년 8월 19일-24일)에 『조선문학에 대해서(朝鮮文學に就て)』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김영팔의 환영사에 등장하는 나카니시의 '작년일'이란 이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초청의 주체는 '염군사' 혹은 염군사 동인들이 관련된 '복흥회'였을 가능성이 크다.

33) 김팔봉, 『편편아화(76)-김팔봉(11) 토월회』, 『동아일보』 1974.5.30.

노스케가 끼친 영향이 비교적 소상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다. 팔봉 김기진은 “압제받고 착취당하면서 억울하고 빈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실감나게 묘사한” 나카니시의 『赭土に芽むもの』을 읽고, 반성했다고 술회한다. 그 이유는 나카니시에 비해 자신이 “조선사람의 현실을 일본인보다도 깊이 관찰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김기진은 도쿄 유학시절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종하다가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 그 중에서도 직접 교류한 아사오 히사시(麻生久)의 감화와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등의 영향, 그리고 일본의 동인지 『씨 뿌리는 사람』과 그를 통해 접하게 된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운동’ 및 바르뷔스와 로망 퐄랑의 논쟁 등을 읽고 문학의 방향을 바꾸게 된 사정을 반복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팔봉의 회고와 초기 비평 및 창작을 토대로 김윤식은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에서 팔봉의 사상 형성에 두 지주가 된 것이 “투르게네프와 바르뷔스의 민중 운동”<sup>34)</sup>이라 정리한 바 있다.

나카니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없었던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김기진의 회고에서 나카니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김기진의 회고는 식민지 시기 이래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고, 실제 사실과도 묘하게 어긋나는 대목도 많아서 각각의 텍스트를 엄밀히 대조하고 이것을 실제 사실과 교차 비교해야만 한다.<sup>35)</sup> 특히, 위의 회고는 1970년대의 것이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팔봉의 회고에 나카니시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소략한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추가된 기억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프로문단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표된 김기진의 비평과 작품에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흔적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한·일의 경향문학

34)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3(13쇄), 17쪽.

35) 예를 들면, 카프 1차 검거 때 형무소에서 경무당국의 요구로 작성한 『朝鮮に於けるプロレタリア藝術運動の過去現在』(1931)에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경성 방문 전인 1925년 7월에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을 창립하였지만, 나카니시 이노스케 환영회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김기진, 『朝鮮に於けるプロレタリア藝術運動の過去現在』, 『사상월보』 제1권 제10호, 1932. 1. 15, 102~103쪽.)



(자)이 식민지 여성 작가를 '소문의 벽'에 가두고 계급 문학에서 젠더의 문제를 배제시키는 순간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 4. 미완에 그친 『汝等の背後より』의 되받아쓰기

최근의 한국문학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문학사가 지니고 있는 남성 중심성과 여성의 타자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문학의 여러 문제적 층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재구조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기성의 '문학'을 파열시켜 새로운 문학'들'을 구성하지는 이러한 시도의 한 양상을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sup>36)</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여러 글들 중에서 심진경의 「여성문학의 탄생, 그 원초적 장면-여성·스캔들·소설의 삼각관계」는 한국의 1세대 신여성들을 둘러싼 풍문이 남성 작가들의 소설에 의해 '사실'화하고 다시 이 소설적 '사실'에 근거해 재생산된 '소문의 벽'에 갇혀 여성 작가의 사회적·작가적 생명을 앗아가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 논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탄실 김명순과 나카니시 이노스케, 김기진이 연출하는 광경은 이러한 구조의 적실한 사례이다.

김명순은 일본 유학 도중에 일본군 보병 소위 이웅준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 1915년 7월 30일 『매일신보』는 「동경에 유학하는 여학생의 은적 어찌한 까닭인가」<sup>37)</sup>라는 제목하에 김명순의 실명을 적고 그녀의 실증건을 다루며 여학생이 연애하는 남성과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보도한다. 이후 8월 5일자와 8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김명순은 '강간을 당해 정조를 잃은' 여자의 낙인이 찍혔다. 이후 그녀에게는 늘 풍문이 따라다녔고, 그 풍문이 사실화했다. 이 풍문을 재생산한 것은 매체와 그 매체에 글을 쓰는 남성 작가들이었다. 이를테면,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개벽』의 「은파리」의 방정환, 그리고 「김연실전」의 김동인, 「김탄실과 아들」의 전영택에 이르기까지

36)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7) 「동경에 유학하는 여학생의 은적 어찌한 까닭인가」, 『매일신보』 1915.7.30.

김명순을 ‘소문의 벽’에 가두고, 허구를 사실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신여성 1세대를 둘러싼 이 무서운 소문의 벽의 구축에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나카니시의 『汝等の背後より』를 읽은 당시의 (남성)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소설의 주인공인 권주영의 모델이 김명순이라는 썩덕거리미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문의 당사자인 김명순이 이 풍문에 맞서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작품을 썼다는 사실은 이러한 풍문이 얼마나 만연했나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김명순은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그린 ‘권주영’이라는 조선 여성의 서사와, 그 형상의 모델을 김명순으로 확신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풍문의 서사에 대항하여 ‘주영≠탄실’을 소명하고 탄실의 삶의 행로를 통해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려는 서사적 시도를 수행했다. 탄실을 찾아온 시인 ‘리수정’, 소설가 ‘지성호’와 그의 오빠 의사 김정택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서두 부분은 곧 김명순이 당시 썩덕거리는 (남성)지식인들과 독자 대중에게 하고 싶었던 항변의 장이기도 했다.

“오-참 그 너희들의 등뒤에서라는 책은 우리 서모집 사랑체에 셋방을 빌어가지고 있던 일본 청년이 쓴 것이라지. 그 주인공을 탄실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더러 묘사해 썼다지미는 아주 다르지요. 그 책 가운데 주영이는 꼭 일본 여자지 어디 탄실이 같습니까. 그래도 그 작자는 탄실이 보담은 그 책의 주인공인 주영이가 훨씬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선 사실부터 탄실이는 처음의 동정을 자기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고 앳기운 것도 또 일본사람에게가 아니라 조선 사람에게 그랬으니까요. 참 말 못할 패독한, 꼭 무엇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 어린 것이 멀리 타향에 가서 그래도 저를 믿는데, 차마 그런 행동이 어떡해서 해졌는지, 도척이 보담 더 하지요. 그것도 웬, 제가 사귀는 것입니까. 내 삼촌이 시롱시롱 사귀어준 것이지요. (……)하나 어느 편으로 보든지 주영이와는 다릅니다.”<sup>39)</sup>

38) 서정자는 김명순이 『매일신문』, 『신여성』, 『개벽』 등의 매체에 의해 입은 피해를 ‘매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상을 추적한 바 있다. (서정자, 『축출과 배제의 고리와 대항서사-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김명순의 문학』,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

39)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 『조선일보』 1924. 6. 16. “그애가 십년 전에 동정을 제 마음대로도

김정택은 「너희들의 등뒤에서」를 탄실이의 집 사랑채에 셋방을 빌려 있던 일본인이 쓴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카니시가 평양에 체재한 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했을 수 있는데,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할 대목이다. 김정택은 나카니시 소설의 권주영의 행적과 탄실(김명순)과 이응준의 행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탄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리수정의 언급과 그에 대한 김의사의 비판은 나카니시 소설을 근거로 김명순을 대하는 당대 남성지식인들의 이율배반과 그에 대한 김명순의 항변이 그대로 담겨있다.

“아아 주영이가 그림다. 주영이 주영이 전진전진하고 앞으로 앞으로 하며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주영이가 그림다, 내가 이상하는 것은 단순한 남에게 버리우고 수절하는 조선 여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 싸워나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여자이다.” 하고 혼자말 같이 부르짖었다.

“리수정군 그림 자네도, 내 누이를 은근히 지도하겠노라고, 원하던 사람이 아닌가. 탄실에게 대해선 그런 입버릇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그 애가 밤이면 이불쓰고, 잠자는 대신 울어서 밤새우지. 그러나 탄실이는 남에게 지도만 받을 여자는 아니고 구구히 사람에게 버리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절하는 여자도 아니지. 대개 사람마다, 핏개가 탄실이와 친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애가, 신성한 자기를 더럽힌다고 남자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sup>40)</sup>

리수정은 권주영과 탄실이를 동일시하는 당시 풍문을 전제로 이 둘이 같

---

안이고 분명한 증생가튼 것에게 팔힘으로 앓기윳다하면, 지방도 바로 듯지 안코 내 누이만을 부랑 성을가진 여자로 아니…… 더, 너희들의등뒤에서란 책이 난 뒤에도, 탄실이는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그꼴을 참아 눈으로 볼 수 업섯서, 말곳마다 읊바 내가 일본 남자와,련애했든 줄 알겠구려, 그러면 내가 창부가튼 게집이라겠지, 그리고 내게도, 도성식이라든지 김성준이라든지 또 신출용이라든지 그런남자들이 잇던줄 알겠구려 하고 번민을 하고--또 울고 하드니 인제는 그것도 싸으려 저서 계법 적적버리고, 더, 안국동 유치원에 맵기지만……”(김명순, 「탄실와 주영이」(4), 『조선일보』 1924.6.17.)

40) 김명순, 위의소설, 같은 회.

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김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남에게 버리우고 수절하는 조선여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 싸워나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여자’로 주영이를 호명하며 탄실이 바로 그런 주영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사는 리수정 역시 탄실을 계도하고 주영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남성 지식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탄실은 남에게 지도만 받을 여자가 아니고 또한 누구에게 정조를 잃어서 수절하는 그런 여자도 아니라 ‘자기’를 확립하고 지키려는 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탄실 즉, 김명순은 이 시기 강간이라는 성폭력의 피해, 풍문에 의한 지속적인 인격 살해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확립하고 지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었다. 역경 속에서도 그녀가 남긴 여러 작품들은 그 증거이다.

시인 리수정의 발화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즉 이 시기 탄실이의 문학적 시도들 즉, 자기를 찾고 확립해가려는 ‘내부적 혁명’을 비판하며 탄실이어나가니시 소설에서의 ‘주영’의 행동과 실천 즉 ‘외부적 혁명’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순은 ‘김정택’의 입을 통해 자기의 형성과 탐색을 통해 ‘내부적 혁명’을 지향하는 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적 혁명만을 외치는 ‘시인’ 리수정의 문학(자)됨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택의 입을 빌린 이러한 비판은 김탄실의 비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영이가 그림다”는 당대 식민지 문단의 현실과 직접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점을 각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팔봉 김기진이 1923년 7월 귀국하자마자 발표한 첫 글인 『프로므나드 상티망탈』<sup>41)</sup>에서 『너희들의 등뒤에서』의 권주영을 선각자로 표상하며 새로운 사상과 문학을 주창하며 썼던 문장이기도 하다. 김정택(김명순)은 탄실에게 자신의 환상을 투사하고 그를 계도하려 드는 김기진류의 식민지 남성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지는 김정택과 리수정, 지성호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답에서 지성호의

41) 김기진, 『프로므나드 상티망탈』, 『개벽』, 1923.7.

말은 곱씹어 볼 만하다.

“그러면 김선생, 내가 영매를 주인공으로 하고 소설을 지으면서 조선사람의 일부를, 그려내보면엇떨가요, 그려할것가트면, ××가 너희들의 등뒤에서를 쓸 때, 더의 나라 사람의, 잔학함을쓴 것과 가티 우리나라 사람의 간사스럽고도 겁만코, 어리석고 약한 것을 마음대로 들추어 볼것입니다”

“대찬성입니다”

“무얼 자네가 그만치 쓸것 가태서 그려나”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쓰면 쓰는 것이지, 비록 갖지안타 뿐일 것이지, 그 책은 그리 잘 쓴 것 인줄 아나, 조선 녀성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아모 경로도 업시, 조선사람보담 그들이 얼마나 높히 보이셔, 훗으로도 안가고 꼭 법률을 공부해서 일본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여자가 그러케쉽게 하필 일본군인을 온천에 까지 따라가, 자기동정을 깨트릴줄 아나.”<sup>42)</sup>

지성호는 김정택에게 자신이 탄실을 소재로 소설을 써 보겠다고 자청한다. 이에 대해 그 실력을 의심하는 친구 리수정에게 반박하며 나카니시의 이 소설에 대한 견해의 일단을 표출한다. 나카니시의 『汝等の背後より』도 그리 잘 쓴 작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조선 여성’을 그리는 태도를 꼽는다. “법률을 공부해서 일본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여자가 그렇게 쉽게 하필 일본 군인을 온천에까지 따라가 자기 동정을 깨트”리는 것이 개연성이 있는가가 그 비판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비판은 지성호의 독후감이자, 김명순이 읽은 작품평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나카니시의 실제 행적과 작품에서는 조선에 대한 동정과 조선문화에 대한 존중, 자본주의 이전의 원향과 같은 풍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인의 삶을 파괴한 식민지 자본주의화에 대한 강한 비판,

42) 김명순, 『탄실이와 주영이』(5), 『조선일보』 1924.6.19.

저항하는 조선 청년에 대한 공감 등 고평할만한 많은 대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이 전(前)자본주의 단계의 조선인을 그리면서 구축하는 원시적 본능과 충동 및 폭력성이라든가, 그 폭력성을 ‘피’의 유전에서 찾는가 하면, 조선의 풍속과 여성을 미적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으로 구성하는 등 그의 소설이 구축한 ‘조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성호(혹은 김명순)은 나카니시 작품에서 일본인 남성의 시선이 이미지화한 조선 여성의 형상이 지닌 불편함을 포착하고 있으며, 서사적 개연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sup>43)</sup>

그러나 김명순이 염원했을 탄실을 주인공으로 하는 지성호의 대안적 소설은 싹여지지 못했다. 대신에 식민지 조선의 남성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것은 『김연실전』 등 정반대의 소설들이었다. 또한, 김명순이 『탄실이와 주영이』를 통해서 시도했던 소명과 풍문에 대한 불식 등도 곧바로 좌절되었다. 소설이 발표되고 불과 몇 달 뒤, 김기진은 야비하고 악의적인 문장으로 가득한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을 『신여성』지에 발표하여 ‘탄실과 주영이’ 양자 모두를 ‘더러운 피’를 가진 동일한 인물로 유비시키는 비난에 나섰다.<sup>44)</sup>

이 공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비판적인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정자의 연구는 이 공개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로 거론할만하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 공개장에서 김기진은 김명순의 사회적 생명을 죽이기 위해 여성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될 성폭력의 수사학을 썼으며, 나카니시 작품의 피부에 대한 비유를 의식적으로 표절하였고, 유미주의적 악마주의 작가인 임노월 등과의 동거 생활 등의 언급을 통해 그녀의 성적 방종을 비판함으로써, 즉 가장 약한 여성에 대한 공격을 매개로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기 위해 기획된 글이었다.<sup>45)</sup> 이 글의 관

43) 나카니시 소설에 등장하는 ‘土人’, ‘土民’ 등의 표현에 대한 불편함은 나카니시 방문 시의 환영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44) 김기진,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제2권 제1호, 1924년 11월호.

45) 이후 ‘매체폭력’이라는 개념의 폭력성을 더욱 강화하여 ‘미디어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김명순에게 가해진 ‘미디어테러’의 원류로 김기진을 지목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서정자,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분석-김명순에 대한 미디어테러 1백년의 뿌리』, 『여성문학연구』 43, 2018)

심과 관련해서 보자면, 김기진의 「공개장」이 나카니시 작품과 상호 텍스트성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개장」은 아비함으로 가득 찬 글인데, 그 중에서도 피부에 관한 수사는 나카니시를 연상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같은 민족의 처녀다운 향기로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래 타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곳 매춘부들의 살밖에 알지 못했다. 그랬기에 모국에 돌아온 첫 번째 희망은 그것을 마음껏 맛보는 일이었다. 돌아오자마자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그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첫걸음에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물론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몸이 그 정도로 퇴폐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지금 처녀의 몸에 얼마나 굶주려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 그 여자를 버려도 좋다. 다음에 그 여자를 대신해서 좀 더 기름지고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매끈한 멋진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면…….46)

연령에 비하여 말하면 어디로 보든지 17, 8 내지 20 전후의 여자가 아니라 30 내외의 중년여자라는 것이 가하고 피부에 비하여 말하면 남자를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는 기름기 있고 윤택하고 보드랍고 폭신평신향 피부라고 하느니 보다도 오히려 육육에 거친, 윤택하지 못한, 지방질은 거의 다 말라 없어진, 퇴폐하고 황량한 피부가 겨우 화장분의 마술에 가려서 나머지 생명을 북돋워가는 그러한 피부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47)

위의 인용은 「여들의 배후에서」의 주인공 권주영의 남편인 거짓된 독립운동가 조성식이 주영을 자신의 손에 넣고 '살갓'을 맛본 순간의 실망을 그린 구절이다. 아래는 「공개장」에서 김기진이 김명순의 시에서 '분냄새'를 맡고 그것을 피부에 비유하여 그녀의 시를 비판하는 도입의 문장이다. '탄실이와

46) 나카니시 이노스케, 『너희들의 등 뒤에서』, 박현석 역, 현인, 2017, 314~315쪽.

47) 김기진, 앞의 글, 47쪽.

주영이'의 동일성 여부를 논란했던 당시의 강력한 풍문을 배경으로 보면, 이 두 구절을 단순한 피부에 대한 비유의 우연한 유사성으로 치부하고 말기에는 지독하게 음험하다. 급기야 김기진은 이 『공개장』에서 직접 『여등의 배후로서』를 언급한다.

그 자신이 명언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의 중서이지조씨의 작품 『여등의 배후로서』 --현재 매일신보에 연재중--의 여주인공 권주영이라는 여성의 모델이 아마 자기 자신인 듯하다. 그 소설에 나오는 바와 가티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신용할만한 말인지는 모르나 하나 그러나 이것을 신용한다하면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그의 히스테리가 더 맹렬하여진 것이나 아닐는지 나는 생각한다.<sup>48)</sup> (밑줄 : 인용자)

이 문장들을 꼼꼼히 읽으면, 김기진이 몇 달 전 김명순이 쓴 『탄실이와 주영이』를 읽었으며, ‘그 소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 신용할만한 말인지는 모르나’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신용한다 하면’이라고 비약하면서, 김명순의 히스테리가 바로 주영이 혹은 탄실이의 남성 체험과 관련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진은 결국 나카니시의 소설 속 여주인공 권주영을 이 글로 끌고 와서 주영과 탄실이 같은 인물이고, 남자에게 정조를 ‘앗기운 것’이 히스테리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셈이다. 특히, 임노월 등과의 동거를 거론하며, 일본 군인에게서 조성식으로 조성식에게서 김성준 등으로 전전하는 권주영의 성적 방종을 김명순의 그것으로 결부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기생이라는 ‘애매여성’의 딸인 김명순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 때문으로 설명하는데, 상호텍스트성의 맥락에서 보자면, 『汝等の背後より』의 강간당한 기독교 신자인 여인과 토마스 신부의 피를 이어받은 권주영과 겹쳐지게 될 것이다.

48) 김기진, 앞의 글, 49쪽.



## 5. 나가며

이상으로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식민지 조선의 프로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카프의 결성에 끼친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의 조선행과 환영회라는 일회적 사건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나카니시 이노스케가 단순히 그 일회적 조선 방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작품의 수용의 차원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일본어 작품과 한글로 번역된 작품이 식민지 조선의 작가와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작품의 재현을 현재에서 일어난 사실처럼 증폭시키며 식민지 문단에서 김명순이라는 여성 작가를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작가로 타자화시켰던 김기진 등의 비평,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작품에 내재한 조선(여)인에 대한 낭만화되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재현과 인식 등이 식민지 프로문학의 젠더적 성격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나카니시 작품이 재현한 식민지화 이전 조선의 전원시적 풍경과 그것을 훼손하는 식민지배와 자본주의화, 그로 인해 초래된 지독한 빈궁 등은 카프 작가들의 초창기 작품들에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나카니시는 조선 농민을 원시적 폭력성과 열정의 소유자로 그렸다. 신경향파의 초창기 작품이 보이는 살인, 약탈, 강간, 방화 등 조선 농민이 보여주는 지주와 체제에 대한 폭력적 저항성과 나카니시가 스테레오 타입화한 식민지 조선 농민의 형상은 많은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작품론 차원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기약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동지 中西氏를迎하야』, 『시대일보』, 1925.8.17.
- 『명년2월을고대하며 옥중에서도호방한생활』, 『동아일보』, 1925.12.14.
- 『사상운동의투사 中西씨와 奧여사』, 『동아일보』, 1925.8.15.
- 『옥중의박열삼일간을단식』, 『조선일보』, 1925.11.28.
- 『조선문학의정의-이렇게규정하려한다!』, 『삼천리』, 1936년 8월호.
- 『조선'프로'문예연맹준비회』, 『시대일보』, 1925.8.19.
- 권영민,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1920년대의 한국 계급문단』, 『외국문학』 겨울호, 1991.
- \_\_\_\_\_, 『한국 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 김기진,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제2권 제1호, 1924년 11월호.
- \_\_\_\_\_, 『朝鮮に於けるプロレタリア藝術運動の過去現在』, 『사상월보』 제1권 제10호, 1932.1.15.
- 김동환, 『신흥민중과 문(文)과 검(劍)』(총5회), 『동아일보』, 1927.9.23~9.27.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3(13쇄).
- 김팔봉, 『편편아화(76)-김팔봉(11) 토월회』, 『동아일보』, 1974.5.30.
- 나카니시 이노스케, 『너희들의 등 뒤에서』, 박현석 역, 현인, 2017.
- 배성룡, 『조선사회운동사』13, 『조선일보』, 1929.2.9
- 와타나베 나오키,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의 조선 관련 소설에 대해서』, 김태준편,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 이원동, 『汝等の背後より』의 수용·번역과 제국적 상상력의 경계』, 『어문론총』 제68호, 2016.6.
- \_\_\_\_\_, 『신경향파 소설과 젠더 배치의 상상력-김명순이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어문학』 138, 2017.12.
-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 연구』(1), 『어문학』 제112집
- 中西伊之助, 『소설예고 熱風-작가의 말』, 『조선일보』, 1926.1.22.
- \_\_\_\_\_, 『새로운 민족문학의 수립』, 『문예운동』 2호, 백열사, 1926년 5월.

## ‘Proletarian Literature’ in Nakanishi Inosuke(中西伊之助) and the Colonial Joseon

Jeong, Jong-hyun\*

Nakanishi Inosuke(中西伊之助) is a Japanese author who is mentioned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e was not only a prominent socialist activist in Japan, but also did have crucial influence upon the literary world in colonial Joseon through novels that addressed the reality of colonial Joseon such as 『Sprouting on Red Soil(赭土に芽ぐむもの)』, 『Behind You(汝等の背後より)』, 『Futei Senjin(不逞鮮人)』. The welcoming meeting of his visit to Joseon led to having integrated Yeomgunesa(焰群社) and PASKYULA associate(同人)s, resulting in having inaugurated KAPF. Thus, he is remembered as a sponsor(産婆役) of KAPF. However, the impact that Nakanishi Inosuke had on the colonial proletarian literature is not what ends in the one-time scene of a welcome party(歡迎會). Nakanishi Inosuke's colony-related literature gave a strong shock to the intellectuals in Joseon, and contributed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o the character of the new tendency group and proletarian literature works in colony. His influence was powerful enough to be used as the questionnaire item of inquiring into the category of Joseon literature in the Journal 『Samcheonri』 in the 1930s. Also, the episode of Tansil(彈實) Kim Myeong-sun with which he dealt as a material in 『Sprouting on Red Soil』 played a certain role even in the otherness of a

---

\* Inha University

woman(revival) in the colonial proletarian literature through having Kim Gi-jin as a medium.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a little bit to the future research of Nakanishi Inosuke through reconstructing the traces of translation and acceptance on Nakanishi Inosuke that was not fully addressed in such previous research, while referring positively to the latest findings on the impact that Nakanishi Inosuke had on the colonial literary world.

**Key words**: Nakanishi Inosuke(中西伊之助),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Proletarian Literature, New Tendency Group, 『Behind You(汝等の背後より)』, 『Sprouting on Red Soil(赭土に芽ぐむもの)』, 『Futei Senjin(不逞鮮人)』